



다시 제주, 지역출판 새로운 10년을 향해

지역출판연대·한라도서관
3~5일 제10회 지역도서전
상설 개최·국제전 도약 제시
지역출판 법 개정 의지 선언
지역출판 조례 실효성 과제

“공모에 참여한 28개 출판사 60여권의 도서는 중앙 집중 현상으로 야기되는 지역 소의 문제를 출판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사에서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출판물인가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서귀포시 표선면 사무소 강당.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 제10회 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인 제주 김수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주 한그루 출판사에서 펴낸 장윤식의 ‘탄압이면 항쟁이다’ 등 5권의 도서 출판사와 저자에게 대상과 공로상이 각각 수여된 가운데 김 시인은 지역출판 대상에 응모한 출판사 모두 자기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2017년 “지역출판은 서울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첫걸



① 지난 4일 서귀포시 표선면 사무소 강당에서 진행된 지역출판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 표선해수욕장에 펼쳐진 지역도서 전시·판매 부스.
③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지역출판 특별전.

전선희기자

음을 디뎠던 한국지역도서전이 9개 도시를 차례로 순회한 끝에 10회째인 올해 제주에 닿을 내렸다. 상설 개최, 국제도서전 도약 등 지역출판의 새로운 10년을 꿈꾸며 한국지역출판연대·제주도 한라도서관 공동 주최로 ‘지역의 목소리, 지지 않는 문(文)이 되다’란 주제 아래 지난 3~5일 제주도립미술관, 표선면 사무소, 표선해수욕장에서 제주한국지역도서전을 펼쳤다.

지난 4일 개막식에선 ‘한국지역출판연대 회원 일동’ 명의로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지역출판

의 법적 정의를 세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엔 힘을 모으고 동아시아 지역도서전을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3일 도립미술관 강당에서 마련된 ‘공공으로서의 출판, 지역출판의 미래’ 주제 지역출판 포럼에서는 10년 가까이 도서전을 이어오고 있으나 지역출판의 현실은 그대로라는 진단이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명 한국영상대 교수는 2015년 지역출판 논의 내용을 꺼내며 “당시 지역출판 도서의 물류비 지원, 지역 공공 도서관의 지역출판 도서 구입 의무화 등이 제

시됐지만 지역도서전 상설 운영 외에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짚었다. 토론 좌장인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내 도서 유통 이전에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 생산에 방점을 찍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서전은 당초 도립미술관에서 사흘 내내 이어진다고 홍보했으나 로비를 활용한 부스 운영이 여의치 않아 4~5일 일정은 표선리 일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최 측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관람객과의 소통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의술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 집행위원장은 “한라도서관에서 7월 초에 도서전을 열기로 했으나 공사 진행으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세팅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도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올해 예산이 2017년 첫 행사보다 적다”며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컬럼버스

사이와 거리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에 가까울까. 도피와 탈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회피와 외면의 심정으로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다.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환상의 공간 옆에는 수심이 가득한 집, 혹은 무엇도 남지 않아 공허한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을 것이다. 지켜낼 수밖에 없는 텅 빈 공간 위로 복잡한 마음이 무게를 더하고 시간은 흐른다. 집 안에 살고 있지만 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는 이가 있다. 코고나 감독의 영화 ‘컬럼버스’의 케이스(헤일리 루 리차드슨)가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책임의 영역일까, 혹은 미련의 시간일까. 세계적인 건축학자인 이재용 교수가 강연을 앞두고 돌연 쓰러진다. 한국에서 번역가로 살던 아들 진(존 조)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오랜만에 컬럼버스로 향한다. 사랑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묻어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진은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마주한다. 아버지의 병세도 둘의 관계도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 컬럼버스에 머무르는 것뿐이다.

‘컬럼버스’에서 케이스와 진은 떠나지 못하는 사람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난다. 둘은 비슷한 속도로 삶을 걷는 이 되고 서로를 알아본다. 조용한 도시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공유하며 둘 사이에는 기적이라 부를 만한 조우가 발생한다. 말없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집이 아닌 공간을 함께 나누면서다. 이 땅 위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은 건축물들을 함께 바라보던 시간들 사이에서 생겨난 일이다. 소설가 이승우는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에서 ‘공간은 인물에게 처소를



영화 ‘컬럼버스’.

제공하고 시간은 인물에게 움직임을 제공한다’고 썼다. 케이스와 진에게는 각자의 집이 아닌 컬럼버스라는 도시가 처소가 된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 밖에 나선 이들이 고요한 시간을 겪으며 각자의 삶을 움직이는 일, 그것이 영화 ‘컬럼버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케이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침묵과 균형으로 도시를 지탱하는 건축물들이다. 그녀는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형태 앞에서 위로받고 삶을 지탱하는 법을 배운다. 반면 세계적인 건축학자인 아버지를 둔 진에게 건축물은 아버지와의 거리만큼이나 가까워지지 않는 존재다. 그런 진에게 그 벽 너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케이스이다.

‘컬럼버스’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간다. 케이스와 진의 변화에도 밀도 높은 시간이 필요함을 영화는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더디고 지루한 여정일 수 있지만, ‘한 발자국’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영화다. 떠돌다와 머무르다 사이에서 발견하고 나아가다에 이르는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음을, 어딘가에 갇힌 경험이 있던 이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공연 소식

▷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2026 신인음악회=역량 있는 젊은 연주자를 소개하는 무대. 협연자 공개 모집 후 서류·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피아니스트 정흥연과 첼리스트 차단비가 무대에 오른다.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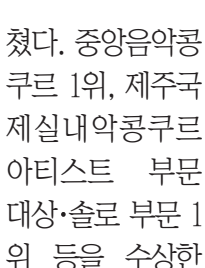
정흥연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대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스타인웨이 장학상, 프란체스코 파올로 벨리아 국제콩쿠르 특별상 수상 경력이 있다. 차단비는 제주 출신 연주자로 서울예고를 조기 입학·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마



피아노 정흥연



첼로 차단비



피아노 정흥연



첼로 차단비

이날 음악회는 국내외 오케스트라 지휘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여진이 객원 지휘를 맡는다. 공연 프로그램은 보르딘의 ‘이그르 왕자’ 서곡,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협연 정흥연), 프로코피예프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협연 차단비)로 짜였다. 무료, 관람권 예약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 구대원 플루트 독주회=구대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플루트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고향에서 그간의 예술적 성장을 담아내는 무대를 펼친다.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



플루트 구대원

구대원은 초중고 시절은 물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중앙음악콩쿠르 플루트 부문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생상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텔레만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환상곡’,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운디네’. 피아노는 연효정.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사전예약 할인 (현달간~7.15일까지)

1,099,000 → 999,000

※ 양국정부 인허가조건 ※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원

오진

1,199,000원

상해

1,099,000원

광복절연휴 항주, 상해 4일

8.14(금)-17(월,대체휴일) 1,099,000원

오사카 4일

1,520,000~

후쿠오카 4일

1,550,000~

타이베이 4일

1,190,000~

카오슝 4일

1,210,000~

싱가폴 5일

1,440,00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 TAX, 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가치세(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